남도·몽골문학 교류의 장 열린다

광주·전남 문인들 몽골 방문
내일 '몽골문학컨퍼런스'
번역 작품집 발간·시화전도

남도문학과 몽골문학의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오는 23일부터 5박 6일간 광주·전남지역 문인들이 몽골문학과의 교류를 위해 몽골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속 문인들이 몽골작가협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진행되는 최초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문학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번 한국몽골국제문학교류는 목포 작가회의(지부장 유종)와 광주전남작가회의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강회진)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양국 문인들의 상호 번역 작품집 발간, 한-몽 시화전, 시산문낭송회,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진다.

참여 문인들로는 고영서, 강회진, 나종영, 김종숙, 김호균, 박관서, 이동순, 이지담, 유종, 조진태, 주영국, 채희윤 등 모두 12명이다. 몽골에서는도 담딩수렝 우리앙카이, 막완에르덴 사롤달라이, 고나잡 아유르잔, 푸릅후 바트호약, 롭산도르찌 울지턱스 등 모두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목포작가회의와 작가회의 국제교류위원회는 몽골문학의 체계적인 이해와 학습, 양국 문학 작품 번역 등을 위한 사전 워크숍을 2차례 진행했다.

24일 오후 2시에 는 몽골문화예술대학에서 '몽골문학컨퍼런스'가 열린다. 시인 박관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이 '한국문학에 수용된 칭기즈칸의 의미와 양상'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박 시인은 "몽골은 변방의식이나 유목문화로 집약된다"며 "이는 흔히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정체성과도 맞물리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몽골문학여행을 다녀온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채희윤 작가

박관서 시인

강회진 시인

24일 오후 4시부터는 본 행사인 한국몽골문학교류가 몽골 울란바타르 나착도르지 도서관에서 이어진다. '2018 한국몽골문학교류-몽골반점, 문학의 원형찾기'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주제발표, 참여작가 작품 소개, 시산문낭송회 등이 펼쳐진다.

먼저 작년 제1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에서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우리앙카이 시인과 나종영 시인이 축사를 한다. 이어 몽골작가회의 회장 사롤 달라이와 광주전남작가회의 박관서 회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양국 문인들의 대표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현재 전문번역가에 의해 한국 작품은 몽골어로, 몽골 작품은 한국어로 번역이 끝난 상태다.

다음으로 우리앙카이 시인이 몽골 문학과 한국 문학을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앙카이 발표가 끝난 후에는 양국 문인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양국 문인들의 걸개시화가 내걸려 친선 분위기를 돋는다. 저녁 만찬에서는 참가문인들의 시낭송회가 펼쳐진다.

25일에는 몽골 작가들과 함께 몽골 유적지를 방문한다. 몽골에서 제일 큰 사원인 단단사를 비롯해 복드칸 국립 박물관을 방문해 몽골문화의 진수를 느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팝페라와 재즈가 만났을 때'

'빅맨싱어즈' '더블루이어즈' 25일 광주문예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7월 공연은 '팝페라와 재즈가 만났을 때'다.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날 공연에는 빅맨싱어즈와 더블루이어즈가 출연한다.

이날 공연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먼저 빅맨싱어즈가 '우리는 빅맨', 'Always', 'Touna A Surrriento', '바람의 노래'를 선보인다. 이어 더블루이어즈가 'Twilight in Upper West', 'The Days of Wine and Roses', 'Isn't She Lovely', '모나리자', '소녀시대' 등을 들려준다.

이밖에도 두 그룹이 합동으로 준비한 '카레', '슈퍼맨'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빅맨싱어즈는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팝페라 그룹으로 이탈리아 깐쵸네와 한국가요, 뮤지컬, 팝송 등 대중들과 소통하기 쉬운 레퍼토리로 공연을 하는 단체다. 지난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축하공연으로 광주시장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블루이어즈는 색소폰, 베이스, 기타 등의 팀원들로 구성됐다. 문화예술로 꿈꾸고, 나누고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공연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62-613-8237.

/전은재 기자 ej6621@

'빅맨싱어즈'

'더블루이어즈'

동국진체 대가 '이삼만展' 기념 휘호 시연

이돈흥·전명옥·정광주 참여…내일 은암미술관

동국진체의 대가 창암(蒼巖) 이삼만과 그의 세 제자 호산(湖山) 서홍순, 기초(箕樵) 모수명, 호암(湖巖) 박문회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동국진체의 개화'전(28일까지)을 진행중인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은암미술관은 24일 이번 전시를 기념, 광주 서단을 대표하는 학정 이돈흥, 담헌 전명옥, 금초 정광주 선생의 휘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돈흥 선생은 오전 10시부터, 전명옥·정광주 선생은 오후 3시~5시 시연한다.

학정 이돈흥 선생은 여초 김응현, 송곡 안규동 선생을 사사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대표 서예가로 국제서법가협회 한국 회장직을 위임하고 있다. 담헌 전명옥 선생은 근원 구철우 선생을 사사했으며 한국 서예협회 이사장 및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 했다.

금초 정광주 선생은 대한민국 서예부문 대상, 미술의 해를 빛낸 미술인상 수상을 비롯해 제8회 광주 미술협회장을 역임했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

이돈흥

전명옥

정광주

이성천 곡으로 꾸민 김한아 가야금 독주회

내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한아 가야금독주회가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10번째 독주회인 이번 연주회에서는 '이성천의 12현이야기'를 주제로 이성천의 곡들만을 모아 선보일 예정이다.

가야금연주가이자 국악인인 고(故)이성천씨는 함경도 출신으로 성신여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대 국악과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한국국악교육학회 회장, 국립국악원 원장을 역임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가야금 독주곡 제1번', '놀이터', '숲속의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국악관현악입문', 가곡 '사슴은 노래한다', 무용극 '호동왕자' 등이 있다.

김 씨는 이날 공연에서 이성천의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놀이터', 가야금 독주곡 '살고지다리', 독주곡18번 '두 음을 위한 오현금', 독주곡 20번 '여울', 독주곡 23번 '5월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 씨는 전남대 국악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시립국관현악단 차석, 전남대 국악학과 겸임교수, 광주가야금연주단 단장,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제6회 한밭가야금경연대회 최우수상, 제15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10-2992-539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한아

광주산 애니메이션 '쥬라기 캅스' 사업설명회 개최

㈜스튜디오버튼의 신작 '쥬라기 캅스' 사업설명회가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8' 기간 중인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쥬라기 캅스'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CG활용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한 광주산 애니메이션으로 지난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지상파를 통해 방영 중이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300명이 넘는 라이선시 사업자 등이 참석해 '쥬라기 캅스' 5종 로봇들의 활약상이 담긴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과 자동차, 공룡, 로봇의 3단 변신 메인완구 등을 관람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